



《왼쪽부터 에릭·이서진·윤균상》

# 삼시세끼 “고흥 득량도 서지니호 순항 중”

### ‘어촌편 3’ 첫회 시청률 10% 돌파 ... 에릭, 차츰마 못지 않는 요리로 눈길

에릭이 ‘요리 천재’일 줄이야. tvN이 14일 밤 9시15분 첫선을 보인 ‘삼시세끼-어촌편3’이 첫회에서 시청률 10%를 가볍게 넘기며 쾌조의 출발을 했다. 평균 시청률 12.6%, 순간 최고 시청률 14.6%.

‘삼시세끼’를 3년째 하고 있는 이서진을 중심으로 에릭과 윤균상을 새로운 멤버로 영입한 ‘삼시세끼-어촌편3’은 고흥군 득량도에 살립을 차리며 분위기 전환을 꾀했다.

위는 새로운 게 뭐가 나올까 하는 상황에서 에릭의 요리 실력은 ‘삼시세끼’ 시리즈가 이번 시즌에서도 순항할 것임을 예고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도회적이고 까칠한 도련님 이미지가 강한 에릭이 섬세하고 창의적인 요리 실력을 과시하는 모습이 반전으로 다가오며 시선을 붙잡았다.

계상을 방망이로 발라내 된장찌개에 넣고, 3인분의 감자 수제비를 만들기 위해 재료의 양을 치밀하게 계산하는 에릭의 모습은 그가 지금까지 보여준 어떤 연기보다 재미있게 다가올 정도였다.

앞서 차승원이 현란한 요리 솜씨를 과시하며 시청자의 눈을 사로잡았듯 에릭 역시 어떤 상황, 어떤 재료가 주어져도 똑똑 음식을 만들어내며 감탄을 자아냈다.

에릭은 또한 낚시에도 일가견이 있어, 어촌편에 최적화된 멤버로 등극했다. 요리 천재로 부역을 책

임지는 동시에 낚시에 문외한인 이서진과 윤균상을 이끄는 그의 능숙하고 매끄러운 모습은 신선하게 다가왔다.

에릭은 최근 열린 ‘삼시세끼-어촌편3’ 제작발표회에서 “신화로 데뷔한 이후 단독으로 예능프로그램 출연하는 것은 처음이라 좋아하는 프로그램이지만 두려움 때문에 고민이 많았다”고 털어놨다.

에릭은 이어 “‘1박2일’의 은지원씨 보면서 부러워도 했고, 신화 멤버들은 ‘나가 나가요 우리도 나가자’라며 무조건 나가야 한다고 했다”고 소개했다.

실제로 연출을 맡은 나영석 PD는 에릭이 낚을 많이 가려서 여행 프로그램 출연을 한 적이 없는데 ‘삼시세끼’에 출연하도록 설득하느라 삼고초려를 했다고 전했다.

에릭은 ‘삼시세끼’의 맞춤형 이서진과의 좋은 관계가 출연을 결심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그는 “‘불새’ 데뷔 직후 큰 작품에 큰 역할로 들어가 정진없고 부담이 컸는데 서진이 형이 많이 가르쳐 주고 이끌어줘서 이번에 ‘또 오해영’ 할 때도 생각이 많이 났다”면서 “서진이 형 너무 좋다고 감독님(나영석 PD)한테 얘기했다”고 말했다.

에릭은 2004년 MBC TV의 인기드라마 ‘불새’에서 이서진과 호흡을 맞췄다.

지난 6월 막을 내린 ‘또 오해영’에서는 여주인공 오해영(서현진 분)과 밀고 당기는 로맨스를 이어가는 감성 충만한 음향감독 박도경으로 열연을 펼쳐

12년 전 ‘불새’에 버금가는 성공을 거뒀다.

에릭은 ‘삼시세끼-어촌편3’ 첫 요리로 갯벌에서 캐온 바지락으로 봉골레 파스타를 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드라마 끝난 후에 장 보고 집에서 TV 보면서 요리해 먹는 게 일상이라 요리를 하는 건 불편하지 않았고 식재료가 좋고 고급이어서 재미가 있었다”며 “다만 집에서처럼 조리도구가 없어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설명했다.

막내로 ‘삼시세끼-어촌편3’에 함께 출연한 배우 윤균상(29)은 “에릭 형의 요리 솜씨에 깜짝 놀라 반했다”고 평가했다.

이서진은 전편에서 지속해온 농촌생활을 청산하고 섬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부의 삶을 배우는 데 몰두한다. 이를 위해 선박 면허증을 실제로 취득해 ‘서지니호’라는 조그만 어선을 직접 운전한다.

그는 “사실 정선에서는 프라이팬도 하나 없었는데 여긴 냄비, 프라이팬, 화장실도 있고 환경이 좋아졌다”며 “다만 삼정 하나 없고 밖에 나가고 싶은데 나갈 데가 없는 게 힘들다. 조만간 배를 타고 도망가고 싶어질 것 같다”고 털어놨다.

14일 방송된 지상파 예능 프로그램은 모두 ‘삼시세끼-어촌편3’에 무릎을 꿇어야 했다. SBS TV ‘정글의 법칙 물고기’가 11.6%, SBS TV ‘미운 우리새끼’가 다시 쓰는 육아일기가 11.4%로 선전했지만 금요일 밤 예능 왕좌의 자리를 놓쳤다. MBC TV ‘듀엣가요제’는 5.0%, MBC TV ‘나혼자 산다’는 4.3%, KBS 2TV ‘언니들의 슬램덩크’는 3.2%로 각각 나타났다. /연합뉴스



# S.E.S가 돌아온다

### 데뷔 20주년 맞아 앨범·공연 준비 한창

SM엔터테인먼트가 걸그룹 S.E.S(유진, 바다, 슈)의 데뷔 20주년 재결합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1997년 S.E.S를 데뷔시킨 SM은 17일 “본사의 프로듀싱으로 S.E.S의 20주년 앨범과 공연을 준비 중”이라며 “아직 정확한 시기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S.E.S는 이미 지난해 12월 세 멤버가 다시 뭉쳐 음원을 발표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8년 전부터 매년 바자회를 열어 나눔의 기쁨을 공유한 이들이 새 음원을 발표해 수익을 기부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이다.

하지만 당시에는 “음원을 내 좋은 일을 해보자”는 취지였으며 이번에는 SM과 손잡고 본격적인 재결합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이다.

바다는 최근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S.E.S가 내내이면 데뷔 20주년”이라며 “20주년을 맞이해 우리들의 영원한 친구들과 함께 하는 뜻깊은 시간을 만들어보려 한다”고 소식을 알렸다. /연합뉴스

# 유승준, ‘입국금지 적법’ 판결에 항소

미국 시민권 취득에 따른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0)이 비자발급 거부 적법하다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유승준의 법률대리인 임상혁 변호사는 17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이어 “1심 판결에서 받아들이지 못한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설명하고 2심의 판단을 받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유승준은 지난해 10월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서울 행정법원에 비자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30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초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논란이 됐다. 병무청은 출입국관리법 11조에 의거 법무부에 입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여 유승준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18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좋은사람)	30 KBC 모닝와이드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0 아침 연속극 (사랑이 오네요)
9	30 KBS 뉴스	00 TV 소설 <저 하늘에 태양이> 40 여유 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쁜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특집 대국민 나눔프로젝트 삼시세끼 55 감성애니 하루(재)	00 제보자들 (재)	00 양코르 MBC스페셜	00 TV블로그 꿈지락 05 특집 다큐멘터리 <문명> 55 닥터 365(재)
12	00 KBS 뉴스 12	00 생생정보 스페셜	00 MBC 정오뉴스 20 TV속의 TV	00 SBS 12뉴스 30 KBC 12뉴스 50 TV블로그 꿈지락 55 세상발전 유레카
1	00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5 KBS네트워크특선 뮤직토크쇼 가요1번지 55 별별가족	00 1대 100 (재)	20 문화사색 (재)	55 닥터 365
2	00 생로병사의 비밀 (재) 55 감성애니 하루	00 KBS 뉴스타임 10 세상의 모든 다큐(재)	05 내꺼야 풀록 30 꾸러기 식사교실	00 영재 발굴단(재)
3	00 다큐 공감 (재) 55 튜튼생활제조	00 자동공부학습 위키2 30 TV 유치원	00 MBC 뉴스 10 퓌? 퓌! 키즈스쿨 55 파워배틀 외지카	00 3시, 뉴스브리핑
4	00 4시 뉴스집중	00 여유만만(재)	25 MBC 일일특별기획 <워킹맘 육아대디>(재)	30 꾸러기 탐구생활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VJ 토크대 (재)	00 MBC 이브닝 뉴스	00 아빠가 들려주는 이야기 특목 30 SBS 뉴스퍼레이드 50 KBC저녁 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뉴스타임 2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5 날씨와 생활 10 닥터365 15 특집 생방송 통합의력에서 길을 찾다
7	00 KBS 뉴스7 35 시사현장 맥	50 일일드라마 <여자의 비밀>	15 일일연속극 <다시 시작해> 55 MBC 뉴스데스크	15 TV블로그 꿈지락 20 일일드라마 <당신은 선물>
8	00 집중인터뷰 이사람 25 별난 가족	30 글로벌 24 55 1대100	55 MBC 일일특별기획 <워킹맘 육아대디>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맨 인 블랙박스
9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논	
10	00 KBS 특별기획 슈퍼아시아 6부작 55 숨터	00 월화드라마 <구르미 그린 달빛>	00 월화특별기획 <캐리어를 끄는 여자>	00 월화드라마 <달의 연인-보보경심 : 려>
11	00 KBS 뉴스라인 40 콘서트 필	10 구르미 그린 달빛 별전	10 PD수첩	10 불타는 청춘
12	30 특집다큐 2부작 <특별한 귀향>	35 더 월드, K-POP으로 하나되다	05 MBC 뉴스24 15 MBC 100보통론	30 나이트 라인

EBS 1			
05:00 EBSe 생활영어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빙하의 대어정 노르웨이) 06:00 한국기행(재) 06:20 세계테마기행(재) 07:00 레이디 비그 07:30 로보카 폴리 07:45 꼬마버스 타요 08:00 덩동덩 유치원1~3 08:45 부릉!부릉! 브루미즈 09:00 방귀대장 뽕뽕이 09:15 출동! 슈퍼원스 09:30 이암! 스페이스 정글 09:40 부모 <위대해 엄마>(재)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매운 새우볶음, 배추 사과 절임이)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미스터리 휴먼 다큐(재) 12:40 지식채널e 12:45 숨은 한국 찾기(재) 13:35 뷰티풀 코리아 <한탄강이 빛낸 진경> 13:40 출거운 수학 EBS MATH 13:50 그림을 그려요? 13:55 캐니멀	14:25 정글에서 살아남기(재) 14:55 모피와 친구들 15:05 피터레빗 15:20 아옹명명 귀여워(재) 15:35 오솔 상자2 15:45 코코몽 3 16:15 방귀대장 뽕뽕이(재) 16:30 부릉부릉 브루미즈(재) 16:45 덩동덩 유치원1~3(재) 17:30 로보카 폴리(재) 17:45 꼬마버스 타요(재) 18:00 생방송 특!특! 보니하니1~4 19:00 소피 루비 19:30 EBS뉴스	19:50 극한직업 20:40 다류 오늘 <잠비아의 대자연 속으로> 20:50 세계테마기행 <울리안 알프스의 축복, 슬로베니아> 21:30 한국기행 <행복의 높이 해발 700M> 21:50 EBS 다큐프라임 <어머니의 강, 메콩 - 문화를 잇는 강> 22:45 글로벌 이별 찾아 삼만리 23:35 미스터리 휴먼 다큐 24:05 세상의 모든 법칙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0월 18일(음 9월 18일 癸酉)
<p><b>子</b> 48년생 의외의 것이 눈에 띄겠지만 의미부여 할 필요는 없겠다. 60년생 대체로 순조롭다. 72년생 어느 정도의 역량을 발휘하는 나에 따라서 도량이 달라진다. 84년생 일관된 면모와 지속적인 실행이 순조로움을 불러 올 것이다. 행운의 숫자 : 68, 33</p>	<p><b>午</b> 42년생 흔들리지 말고 태연자약해야겠다. 54년생 중증을 잃지 말고 자기 일에 열중하는 것이 최종의 승자가 되는 길이다. 66년생 원리를 파악하는 것이 유리하다. 78년생 변화에 상당히 영향을 주는 일들이 발생하겠다. 행운의 숫자 : 74, 11</p>
<p><b>丑</b> 49년생 남에게 말도 못할 가슴 답답한 일이 생길리다. 61년생 급박한 국면이니 속전속결해야겠다. 73년생 물꼬가 트이면서 연쇄 적 작용을 일으키는 기쁨이 보인다. 85년생 완벽하게 처리해야 뒤달이 없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76, 40</p>	<p><b>未</b> 43년생 끝까지 계속해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느니라. 55년생 외면하는 내용에 치중하는 것이 현명하다. 67년생 기다려 왔던 것을 실행해야 할 적기다. 79년생 되로 주고 말로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86, 39</p>
<p><b>寅</b> 50년생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자 62년생 활력을 띠면 서 연쇄적인 효과까지 나타날 것이다. 74년생 번거롭더라도 직접 상면해야 시원하게 해결된다. 86년생 상당한 성과를 거두면서 날로 새로워 질 것이다. 행운의 숫자 : 81, 21</p>	<p><b>申</b> 44년생 길성이 비추면서 흥이 절로 나리라. 56년생 아차하는 순간 후회할 것이니 시간 할애를 잘해야 한다. 68년생 기사화생하는 기쁨이 매우 클 것이니라. 80년생 지나치게 맹신하다가 크게 잃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행운의 숫자 : 73, 16</p>
<p><b>卯</b> 51년생 길사가 겹치게 되면서 날이 갈수록 점점 바빠지게 될 것이다. 63년생 단순하게 반복한다거나 획일적이었던 발전을 도모 하기 힘들어 질 것이다. 75년생 정비해 뒤라. 87년생 인간관계로 인해서 불편한 일이 생길 수다. 행운의 숫자 : 64, 95</p>	<p><b>酉</b> 45년생 지난날일랑 모두 잊고 앞일에 더 신경을 써야한다. 57년생 취약점을 보완한 후에 재도전 하자. 69년생 변화무쌍한 성국이니 순발력이 절실 하느니라. 81년생 상고조에 소통될 수 있는 연결 고리가 절실하다. 행운의 숫자 : 67, 10</p>
<p><b>辰</b> 40년생 작은 것을 버리고 큰 것으로 승부를 걸자. 52년생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64년생 치밀하게 구상하고 철두철미하게 행하라. 76년생 보이지 않는 작용력이 있다. 88년생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다방면에 특이 있다. 행운의 숫자 : 38, 75</p>	<p><b>戌</b> 46년생 중요한 일을 이룰 수도 있다. 58년생 만일의 사태에 대비 하지 않으면 혼란스러워질 것이다. 70년생 대화를 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니 이리하면 상호 이해가 부족하게 된다. 82년생 불일치로 인한 폐단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17, 51</p>
<p><b>巳</b> 41년생 획일화된 시각이 발전의 한계를 가져올 수도 있다. 53년생 고정 관념을 깨야 새로운 것이 보인다. 65년생 꼭 가야만 한다. 77년생 폭 넓게 다루는 것이 낫다. 89년생 처한 입장 때문에 원칙을 벗어났어서는 아니 된다. 행운의 숫자 : 20, 29</p>	<p><b>亥</b> 47년생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으면 비난을 면기 어려울 것이다. 59년생 구색을 다 맞추다 보면 부담스러워진다. 71년생 관점을 따라서 많은 차이가 날 것이다. 83년생 넓고 깊은 물속에 큰 물고기가 사는 법이다. 행운의 숫자 : 05, 22</p>